

나주 공산면서 배농사로 성공스토리 쓴 이주여성 산산원씨

올해 '억대 부농'...미안마댁 꿈을 이룬다



나주의 한 이주여성인 배농사를 지으며 '억대 부농'의 꿈을 키우고 있다. 극심한 농촌 고령화로 전남지역에 노는 밭과 논이 늘고 있지만 이 여성은 선진 농법을 발 빠르게 익혀 1억원대 수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나주시 공산면의 배밭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배 따기작업이 한창이었다. 농촌에서 젊은 일꾼 구하기가 힘든 요즘, 배밭을 분주히 오가며 작업을 하는 이주 여성이 눈에 띄었다.

이 여성은 배밭의 주인인 산산원(49·Sansan Win)씨다. 젊은 사람에게는 힘든 과수원일이지만 배를 따고 담는 모습이 한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나주에 터를 잡고 전, 고향 미안마에서 대학을 다니며 수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1988년 미안마 민주화운동으로 전국 대학이 문을 닫자 친구들과 함께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공부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곳에서 지난 1991년 남편을 만났다. 결혼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다.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시댁에서는 일본 유학을 마친 아들이 데려온 외국인 며느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고향에서 배 농사를 짓겠다는 예비부부의 뜻을 꺾지 못했고, 그렇게 그녀의 한국 생활이 시작했다.

농사도 만만찮았다. 시부모가 배농사를 짓긴 했지만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는 힘든 일였다. 시부모의 도움으로 4000평의 땅에 처음으로 배 묘목을 심었다. 시간이 흐르면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배 가격은 갈수록 떨어졌고, 농자재 값은 하늘 무

은 4곳의 과수원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다. 올해 3000여평을 구입해 그녀가 보살피는 배밭은 1만2000평에 달하고, 올해 수익 목표는 1억원이다. 나주에 터를 잡고 배 농사를 한 지 20년 만에 억대 부농이 되는 셈이다.

그녀는 "과수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서 "국내에 출하할 과수원과 수출용 배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구분해 상황에 맞게 농사를 짓는다"고 소개했다.

나주 배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최근에는 인근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에게 농사를 돕고 있다. 자신이 너무 어렵게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주여성들이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국 연변에서 나주로 시집온 공영나씨도 그녀의 도움으로 부농을 꿈꾸고 있다.

그녀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배 농사를 많이 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 나주 배의 명성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주는 일조량이 풍부해 추석 명절에 맞춰 배를 출하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출하시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것도 그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녀는 "농사는 날씨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계산하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 과학이다"면서 "농촌도 잘 살 수 있고, 이주여성도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주 배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최근에는 인근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에게 농사를 돕고 있다. 자신이 너무 어렵게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주여성들이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국 연변에서 나주로 시집온 공영나씨도 그녀의 도움으로 부농을 꿈꾸고 있다.

나주 배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최근에는 인근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에게 농사를 돕고 있다. 자신이 너무 어렵게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주여성들이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국 연변에서 나주로 시집온 공영나씨도 그녀의 도움으로 부농을 꿈꾸고 있다.

4000평으로 시작한 배밭 1만2000평으로 늘어나 선진농법 발빠르게 익혀 나주 이주 20년만에 결실

모르고 지냈었다. 그녀가 배 농사를 시작할 당시 배 가격은 15kg 한 상자에 8만원가량이었고, 인건비도 하루 2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7만원으로 오르고 농약 등 농자재 가격도 올랐다. 그녀는 무척대고 동네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다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노하우를 배웠다. 그렇게 10년을 투자하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터 익숙해지면서 과수원도 늘기 시작했다. 지금



올해 억대 부농을 꿈꾸며 배를 따고 있는 미안마 출신 산산원씨.



제 2의 산산원을 꿈꾸고 있는 중국 연변 출신 공영나씨.

나주시 소상공인 소득금고기금 용자 연 20억으로 확대

강인규시장 세지면 방문 약속

나주시는 소상공인 소득금고기금을 늘려 창업과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출상환에도 올린다.

나주시는 27일 "주민소득금고기금 가운데 소상공인 분야 용자규모를 연평균 20억원 규모로 확대해 창업과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대출 상환액을 시설자금의 경우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최근 읍·면·동을 순방중인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21일 세지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강 시장은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도

움이 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위해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대출 상환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방식도 장기적 자금과 단기성 긴급 지원자금으로 구분해 다원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농촌에서 늘어나고 있는 마을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 소득금고사업은 관내에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연리 1.5%, 2년거지, 4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는 대출 상환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현황은 2003년부터 2013년도까지 11년간 315명에 76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7명에 11억여원을 지원한 상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내달 4·5일 추석맞이 로컬푸드 직거래 상생장터

나주시는 빛가람동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석맞이 로컬푸드 직거래 상생장터'를 마련한다.

이 장터는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빛가람동사무소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주배꽃생협을 비롯한, 귀농인 연합회, 나주시 조공법인, 나주축협, 지역내 제조업체 등이 참가해 다양한 물건을 판매한다.

판매 품목은 나주배 및 꽃감, 친환경 채소, 친환경 잡곡류 등 우수 농특산물과 한우 갈비, 돼지 갈비, 오리 등 축산물이다.

또 고추장, 양파즙, 한과, 막걸리, 나물류, 떡류 등 나주에서 생산되는 80여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10% ~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행사 당일, 쌀 1kg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



트도 곁들여진다.

나주시 관계자는 "추석맞이 로컬푸드 직거래 행사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입주민과 지역민이 서로 만나 관심과 배려를 보여 줌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혁신도시 빛가람동에 나주금천농협 중앙호수지점 개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동에 농협이 처음 문을 열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나주금천농협(조합장 김선중)은 27일 "최근 아파트 입주민과 이전기관 직원 및 상가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빛가람

LH 2단지 상가에 중앙호수지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사진>

금천농협은 앞으로 빛가람도시에 하나로마트(330평)와 3개의 금융점포를 추가로 개점할 예정이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민흥	267-4748
백운	673-4698
동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오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에나방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